

지방주택 노후화 심화...전남 63% 30년 넘었다

국토부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발표

도내 노후주택 비율 신안·진도·보성 順

전남지역 주택 63%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안, 진도, 보성 등 전남 3개군은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서울 30년 이상 노후주택 57.5%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

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 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65.2%), 전남 (63.1%), 대전 (62.2%) 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33.2%)였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 (60.6%), 전남 신안 (58.6%), 전남 진도 (57.5%), 전남 보성 (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 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 (2.6%), 용인 기흥 (3.3%), 용인 수지 (3.6%) 등이었다.

◇상업용 건축물, 작년 인허가·준공·착공 모두 감소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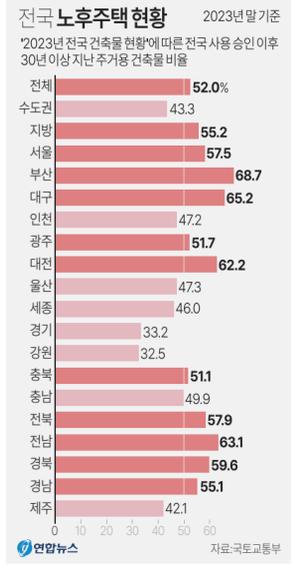
착공 면적은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준공 면적만 0.3%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30.6%, 착공은 27.4%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21.5%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 (-28.8%), 착공 (-42.5%), 준공 (-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작년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도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아파트 허가 면적은 27.6%, 착공 면적은 19.2%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34.7%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허가 면적은 수도권에서 3.0%, 지방에서 33.3% 줄어드는 등 지방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밥차' 출발
2024년 상반기 '사랑의 밥차' 운영이 시작된 16일 광주 북구 두암중2단지 어린이공원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정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등 6개 봉사단체가 참여한 이날 배식은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40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광주북구 제공)

광주·전남지역 외식물가 상승세 주춤

2-3월 냉면·삼겹살·갈국수 등 8개 품목 가격 같아

광주·전남지역 외식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지역 외식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62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

광주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0년 3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이후 48개월째 이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외식 소비자물가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는 0.4%p로 지난해 11월 2.1%p, 12월 1.6%p, 지난 1월 1.6%p, 2월 1.3%p에 이어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대조적으로 전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식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전남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4%를 넘어섰다.

이후 4개월 간 지난해 12월 3.4% (3.3%), 지난 1월 3.7% (3.1%), 2월 3.7% (3.5%)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 3.1% (3.6%)를 기록해 멈춰서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서도 이 같은 외식물가 동향을 엿볼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8개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 2월과 3월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지난 3월 기준 광주지역 냉면 가격은 9천600원, 비빔밥 9천900원, 김치찌개 백반 8천원, 삼겹살 (200g) 1만5천289원, 자장면 6천800원, 삼계탕 1만6천400원, 갈국수 8천200원, 김밥 (1줄) 3천340원 등이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백반 200원, 김밥 (1줄) 180원이 오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의 가격은 모두 같아 외식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지난 1월과 3월을 견주면 8개 품목 중 지난 1월보다 오른 품목은 비빔밥 (8천611원→8천722원), 김치찌개 백반 (7천611원→7천722원) 2개 뿐이었으며 삼계탕은 1월 1만6천222원에서 3월 1만6천원으로 오히려 값이 떨어지기도 했다. /김현지 기자

"호텔을 내 집처럼"...유탑 단기 임대 프로모션

1일 4만원...보증금·관리비 無

최근 전세 사기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나 내 집 마련 대신 '주'나 '월' 단위로 계약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에 광주 유탑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레지던스의 장점을 살린 '호텔에서 한 달 살기', '장·단기 투숙'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다.

레지던스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시설을 말한다. 최소 1년 이상 계약 해야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짧게는 1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

도 가능해 주나 월 단위로 계약을 원하는 경우 유용하다.

광주 유탑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단기임대 프로모션의 혜택과 서비스를 강화했다. 1개월만 계약해도 조식권 10매 무료, 주 1회 객실 정비, 투숙 기간 중 유탑호텔 (유탑윙블레스호텔 제주,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 광주 유탑부티크호텔&레지던스) 객실 최대 50% 할인이라는 파격 조건을 걸어 고객 맞이에 나섰다.

객실료는 1일 4만원 풀로 호텔 1박 요금의 3분의 1 가격이며 보증금과 관리

비가 없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객실에는 스마트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고급 거위털 침구, 에어컨, 테이블 등 최신행 가전 가구를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어 별도의 이삿짐 없이 개인 의류만 챙겨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유탑부티크호텔&레지던스 관계자는 "광주시 주력 사업인 AI 관계자들의 장·단기 파견이나 드라마 촬영팀의 수요까지 늘어 많게는 전체 객실 중 3분의 1 이상이 레지던스 장기투숙 고객일 정도"라며 "앞으로도 더욱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 CEO 명품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6일 "호남권역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5회 CEO 명품아카데미'를 개설하고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10주간 진행되는 명품아카데미는 중소벤처기업 CEO 역량 강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천153명이 수료한 호남권 대표 최고 경영자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육각형 리더, 미래를 이끈다 (Hexagon Leader, Lead the Future)'를 주제로 다가오는 불확실성 시대에 경영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리더십 ▲전문성 ▲트렌드 대응력 ▲소통 ▲네트워킹 등 육각형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만을 엄선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5월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각계 저명한 전문가와 함께 경영자의 고민을 풀어나갈 예정이며 호남연수원-광주

과학기술원 GTMBA 협연 연수, 전국 CEO 명품아카데미 합동포럼, 제주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브릿지 리더십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등 후속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비는 1인당 100만원이며 부담 완화를 위해 패밀리 기업은 100%, 중진공 청장사 등문-입고기업은 50%, 과거 CEO 명품아카데미 수료기업은 30%, 소기업은 30% 할인을 비롯해 1개 기업에서 3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 1명은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정은솔 기자

<h2 style="margin: 0;">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2>	<h2 style="margin: 0;">상가 매매 (상무지구)</h2>	<h2 style="margin: 0;">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2>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덤펀)</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기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010-6670-9800</p>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062-382-5500</p>		